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무용 작품  
「흥의 노동, 노동의 흥」에 관한 연구



2025년  
HANSUNG  
UNIVERSITY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무 용 공 연 전 공

이 태 응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남용

무용 작품  
「흥의 노동, 노동의 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ance Work  
「Heung of Labor, Labor of Heung」



HANSUNG  
UNIVERSITY

2025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무 용 공 연 전 공

이 태 응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남용

무용 작품  
「흥의 노동, 노동의 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ance Work  
「Heung of Labor, Labor of Heung」

위 논문을 무용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5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무 용 공 연 전 공

이 태 응

이태웅의 무용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5년 6월 일



HANSUNG  
UNIVERSITY

심사위원장 박재홍 (인)

심사위원 김남용 (인)

심사위원 정석순 (인)

# 국 문 초 록

## 무용작품 「흥의 노동,노동의 흥」에 관한 연구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무 용 공 연 전 공  
이 태 응

본 연구는 한국 전통의 구비 문화 중 하나인 노동요와, 한국인의 정서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흥’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 두 요소가 한국 무용 창작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노동요는 과거 공동체 노동의 과정 속에서 자발적으로 생성되어 구전되어온 노래로, 단순한 작업 소리를 넘어 노동의 효율을 높이고 공동체 구성원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동시에 ‘흥’은 한국인의 정서적 에너지로서, 집단 속에서의 감정적 교감과 몰입, 그리고 놀이와 여유 속에서 발현되는 자생적 활력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노동요’와 ‘흥’은 각각 기능적, 정서적 차원에서 한국 전통문화 속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본 연구는 이들의 상호 관계성과 무용적 표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창작에 접근하였다. 연구자는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노동요와 흥의 개념, 기능, 그리고 상관성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용 창작 작품인 「흥의 노동, 노동의 흥」을 구성하였다. 해당 작품은

전통 노동요의 원형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음악 구성, 한국 전통 장단, 그리고 신체 움직임을 결합하여, 전통성과 현대성을 아우르는 무용 어법을 시도하였다. 특히 ‘에롱데롱’, ‘얼카덩어리’와 같은 실제 노동요를 활용하고, 장구, 북, 팽과리 등 한국 전통 악기의 활용과 무용수들의 신체 움직임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지도록 구성하였다. 작품은 1장 ‘노동’, 2장 ‘흥’의 구성으로 나뉘며, 각 장면은 노동의 반복성과 고단함,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공동체적 즐거움과 몰입의 감정을 안무적으로 풀어내었다. 1장에서는 전통 노동요와 리듬, 그리고 실제 장단 연주를 통해 육체 노동의 분위기를 강조하였고, 2장에서는 노동 이후의 여유와 놀이, 그리고 흥이 발산되는 신체적 표현이 중심이 되었다. 무대화 과정에서는 조명, 무대 세팅, 소품, 의상 등의 시각적 요소들과 함께 작품의 정서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전체적으로 어두운 조명 속에서 시작해 점차 밝아지는 무대의 조명은, 새벽부터 노동을 시작해 해질녘 귀가에 이르는 하루의 흐름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움직임을 통해 노동의 신체적 측면을 강조하고, 그 속에서의 소통과 놀이를 통해 인간성과 공동체성을 조명하였다.

본 연구는 전통적인 노동요와 흥이라는 요소가 단순한 민속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 무용 창작의 서사적·미학적 토대가 될 수 있음을 실천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전통 소재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한국무용의 정체성과 예술적 확장을 시도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몸을 통한 감정과 에너지의 전달이 동시대 관객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를 탐색한 창작적 실험으로 평가될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한국 무용 창작의 맥락에서 전통과 현대, 기능과 예술, 노동과 흥이라는 이분법적 구조를 통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실천적 연구로서, 향후 관련 분야의 창작 및 이론적 논의에 있어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주요어】** 노동요, 흥, 한국무용, 창작무용, 전통과 현대의 융합, 공동체성, 신체표현

# 목 차

I. 서 론 .....	2
II. 이론적 배경 .....	3
2.1 노동요의 개념과 기능 .....	4
2.2 흥의 전통 정서적 의미 .....	5
2.3 노동요와 흥의 상관성 .....	7
2.4 무용학적 관점에서 본 노동요와 흥 .....	9
III. 작품 개요 .....	11
3.1 작품형식 및 구조 .....	11
3.2 작품의 구성요소 및 표현매체 .....	12
3.2.1 움직임 표현방법 .....	14
3.2.2 의상 .....	16
3.2.3 조명 .....	19
3.2.4 음악 .....	24
3.2.5 소품 .....	29
IV. 작품 분석 .....	31
4.1 1장: 노동의 시간 .....	33
4.1.1 내용 및 안무 의도 .....	33
4.1.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	34
4.1.3 음악 .....	37
4.1.4 조명 .....	37
4.2 2장: 피어나는 흥 .....	38
4.2.1 내용 및 안무 의도 .....	38
4.2.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	39
4.2.3 음악 .....	41
4.2.4 조명 .....	42

V. 결 론 .....	44
참 고 문 헌 .....	47
부 록 .....	49
ABSTRACT .....	53



## 표 목 차

[표 3-1] 1장 조명 .....	21
[표 3-2] 2장 조명 .....	22
[표 3-3] 색의 감정 및 심리적 효과 .....	23



## 사 진 목 차

[사진 3-1] 남자 무용수 의상 (정면) .....	18
[사진 3-2] 남자 무용수 의상 (후면) .....	18
[사진 3-3] 여자 무용수 의상 (정면) .....	18
[사진 3-4] 여자 무용수 의상 (후면) .....	18
[사진 3-5] 소품 .....	29
[사진 4-1] 새벽 일터로 가는 장면 .....	36
[사진 4-2] 공동체 노동 모습 .....	36
[사진 4-3] 휴식과 놀이로의 이행 .....	36
[사진 4-4] ‘흥’리듬이 신체로 들어오며 흥이 타오르는 장면 .....	40
[사진 4-5] ‘흥’이 폭발하며 에너지의 절정을 표현하는 장면 .....	40



# I. 서론

오늘날 한국무용 창작은 전통 어법과 현대 감각이 공존하는 흐름 속에서, 새로운 표현 언어의 개발과 감정 구조의 재구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무용이라는 장르는 단순히 형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정의 흐름과 신체의 호흡, 사회적 맥락까지 아우르는 예술로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작자들은 외형적 재현이 아닌, 보다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감정과 리듬을 기반으로 하는 창작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노동요’와 ‘흥’이라는 두 감정적·신체적 요소에 주목하여, 이들이 무용 창작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구현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노동요는 단순한 민속 음악이 아니라, 반복적인 신체 노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된 실천적 리듬 구조이자 공동체 내 정서 공유의 수단이다. 집단 노동의 리듬을 조율하고 협업의 흐름을 유도하는 구조적 특징을 지니며, 그 속에서 참여자들의 감정은 점차 고조되고 신체적 몰입이 강화된다. 반복과 응답 구조, 리더와 팔로워의 구성이 동반되는 노동요는 감정의 고양과 정서의 발화를 촉진하며, 이 과정에서 ‘흥’이라는 감정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는 단지 유쾌함에 국한되는 정서가 아니라, 감정이 리듬을 타고 신체로 분출되는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

‘흥’은 무용에서 특히 중요한 개념이다. 감정의 고조와 몰입은 단순한 감상적 표현이 아닌, 움직임의 원동력이 되며, 안무의 정서적 방향을 결정짓는 힘으로 작용한다. 한국무용은 본래 음악과 신체, 공간과 감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예술 장르이며, 그 속에서 흥은 움직임의 기점이자 감정의 에너지 축으로 작동해왔다. 무용수의 발짓과 손짓, 상체의 흔들림, 눈짓과 표정은 모두 흥의 흐름을 따라 전개되며, 이는 무용수 개인의 감정이 타자와의 교감 속에서 외화되는 대표적 정서 표현 양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무용 창작 환경에서 노동요와 흥은 여전히 표피적 활용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전통 의상, 음악, 장단의 외형적 차용은 많지만, 그 안에 내재된 감정의 구조, 리듬의 원리, 신체와 감정의 상호작용에 대한 심층적 탐색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노동요와 흥은 각각 실용성과 감정성을 기반으로

하며, 이 둘의 융합은 무용 창작에서 단순한 장식이나 분위기를 넘어, 정서적 몰입과 공동 감응이라는 본질적 구조를 구현할 수 있는 예술적 가능성을 지닌다. 따라서 이를 단지 민속 소재로서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체 언어의 구성 원리로 접근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창작 작품 《홍의 노동, 노동의 홍》을 사례로 하여 노동요의 리듬과 홍의 감정 구조가 어떻게 무용 창작으로 구성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작품은 전통 노동요인 ‘에롱데롱’과 ‘얼카덩어리’를 음악적 축으로 사용하였으며, 전통 장단과 현대적 리듬이 결합된 사운드 구성, 무대 위 장구 연주와 신체 표현의 연결, 집단 움직임의 반복을 통해 감정의 고조와 발화를 시도하였다. 특히 무용수들이 각자의 홍에 몰입하다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안무 구조는, 노동요의 리듬성과 홍의 정서성을 입체적으로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첫째, 노동요의 음악적·구조적 특성이 무용의 신체 리듬과 어떤 방식으로 결합될 수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둘째, 홍의 감정 에너지가 동작의 구성 및 해석에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분석한다. 셋째, 전통 요소인 노동요와 홍이 현대 한국무용 창작에서 어떻게 실천적으로 융합될 수 있는지를 창작 사례를 통해 탐색하며, 넷째, 이를 통해 감정 기반의 신체 표현과 공동체적 리듬이 무용 창작에서 지닌 의미를 재조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전통 요소를 단순히 차용하거나 재현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그것의 내재된 구조와 정서를 신체 언어로 전환하는 창작 접근을 실천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한국무용 창작에 있어 감정의 신체화, 리듬의 해석, 공동성의 표현이라는 핵심 개념들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는 데 기여할 것이며, 동시대적 무용 언어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 Ⅱ. 이론적 배경

현대의 예술 창작은 단절이 아닌 연속의 관점에서 전통을 바라보는 가운데, 과거의 문화 자산에 현대적 감각과 해석을 더하는 융합적 흐름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는 예술이 특정 시대나 장르에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시간과 문화를 초월하여 재맥락화될 수 있는 유기적 실체임을 보여준다. 특히 무용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음악 구조, 장단의 리듬감, 한국 고유의 정서, 신체 표현의 방식 등이 오늘날 창작의 중요한 자원으로 재조명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동시대적 감수성과 예술적 언어를 구현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창작의 흐름은 한국무용 분야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국무용은 의례성과 전통성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현대 창작의 장에서는 전통의 외형적 요소를 넘어서 그 내재된 의미와 감각을 현대적 문법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특히 전통 정서와 리듬, 공동체적 신체성은 단지 과거의 유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작적 상상력을 촉발시키는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 요소 중 ‘노동요’와 ‘흥’에 주목하며, 이들이 현대 무용 창작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갖는 예술적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노동요’는 오랜 세월 한국인의 집단적 노동 현장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고 전승되어 온 구술음악으로, 단순히 노동의 리듬을 맞추기 위한 도구를 넘어, 공동체 구성원 간의 정서와 경험을 공유하고 결속하는 생활 예술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이는 구비문학적 특성과 음악적 즉흥성을 바탕으로 하여, 집단의 리듬, 감정, 세계관을 표현하는 창조적 텍스트로 볼 수 있다.

더불어 ‘흥’은 한국 전통 정서의 핵심 개념으로서, 단순한 즐거움이나 유희를 넘어서, 감정의 고조가 신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역동적인 정서 상태를 의미한다. 흥은 전통 예술 무용, 굿, 탈춤, 민속놀이 등 신체성을 기반으

로 한 예술 장르에서 중심 정서로 작용하며, 예술적 몰입과 신명의 감정을 통해 참여자와 공동체를 하나로 엮는 감정적 에너지로 기능한다.

이처럼 ‘노동요’와 ‘흥’은 각각 리듬과 정서, 공동체성과 신체성이라는 한국 전통문화의 중요한 기반 위에 존재하며, 무용 창작에 있어 그 결합은 매우 유의미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노동요의 반복적이고 리듬적인 구조는 무용에서 동작의 구조화 및 에너지 순환의 기제로 활용될 수 있으며, 흥의 감정적 고조는 무용수의 신체 움직임을 보다 생동감 있게 만들고, 관객과의 정서적 교감을 촉진하는 매개가 된다

## 2.1 노동요의 개념과 기능

노동요는 인간의 노동 활동과 밀접하게 결합된 구술음악의 한 형태로, 집단 노동의 효율을 높이고 정서적 결속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전통 민속 노래이다. 이는 단순히 일의 고단함을 달래기 위한 음악적 표현이 아니라, 노동 과정 전반에 리듬과 활력을 부여하며,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정서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실천적 언어로 기능하였다. 일반적으로 노동요는 반복적인 육체 노동 중에 불리며, 노동의 리듬을 조율하고 피로를 경감시키며, 공동체 구성원 간의 소통과 유대를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sup>1</sup>. 이와 같은 기능은 노동요가 단순한 민요의 범주를 넘어, 공동체 문화의 정체성과 감정 구조가 응축된 실천적 예술 형태임을 보여준다.

한국의 노동요는 노동의 종류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 농요, 어요, 산요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되며<sup>2</sup>, 이는 각 노동의 시간성, 공간성, 집단 구조에 따라 그 음악적 양상도 달라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예컨대 농요는 주로 논이나 밭에서의 집단 노동을 중심으로 형성되며, 일정한 구령과 리듬을 통해 참여자들의 작업 흐름을 통일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들 노동요는 대부분 선창과 후렴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정한 리듬의 반복을 통해 동작의 일치성과 집단적 호흡을 유도한다. 예를 들어, 밭을 매거나 김을 매는 과정에서는 구령에 해당하는 선창이 노동의 시작과 끝을 지시하고, 후렴은 집단 구성원들이 응답하며 리듬을 맞추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음악적 구

조를넘어 리더-팔로워 구조, 반복과 응답의 리듬 구조, 일체감 있는 움직임 유도라는 점에서 무용 동작의 구성 원리와의 밀접하게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노동요는 단순한 기능적 음악을 넘어서, 민중의 삶과 감정, 공동체 문화가 집약된 문화적 표현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각 지역의 노동요는 고유한 억양과 표현법, 어휘를 통해 그 지역의 정서적 특성을 드러내며, 이는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그 사회의 가치관, 감정 구조, 공동체 윤리를 반영하는 구술 문화이자 역사적 기록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특히 노동요는 당시 공동체의 시간 감각, 몸의 리듬, 감정 구조가 집단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구성원들의 정체성과 감성의 흐름을 구조화된 방식으로 담아내고 있다.

무용학적으로 볼 때, 노동요는 그 안에 내포된 리듬적 구조, 집단적 정서 에너지, 반복성과 응답성이라는 요소를 통해 신체화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특히 노동요의 리듬은 단순한 시간적 반복이 아니라, 호흡과 움직임의 시작과 끝, 강약과 완급을 정리하는 데 있어 유기적인 구조를 갖는다. 이는 한국 전통 장단과도 맞물리며, 무용의 시간적 구성 원리로 직접 활용될 수 있는 창작 자원이 된다. 더불어 노동요 특유의 공감각적 몰입감, 즉 리듬, 소리, 말, 몸의 통합적 흐름은 무용수들의 감정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감정 동력으로 기능하며, 관객과의 정서적 교감 또한 증폭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결국 노동요는 음악과 움직임, 언어와 신체, 개인의 감정과 집단의 정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한국무용 창작의 원형적 재료로서 높은 예술적 가능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2.2 흥의 전통 정서적 의미

‘흥(興)’은 한국 전통문화와 예술 전반에 흐르는 핵심 정서 개념으로, 단순히 즐겁거나 기쁜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고조 상태가 신체적 반응을 동반하며 집단적으로 확산되는 복합적인 감정 현상으로 이해된다. 이는 감각과 감정, 신체와 리듬이 하나로 결합되는 동적인 정서로, 음악과 춤,

말과 몸의 통합적 표현이 이루어지는 전통 예술의 수행적 맥락에서 두드러지게 발현된다. 흥은 흔히 ‘神明(神明)’과 함께 언급되며 유사 개념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두 개념은 감정의 깊이와 발현 양상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윤중강(2010)은 흥이 감정의 고조와 움직임의 발화를 중심으로 한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정서라면, 신명은 초월적 감정의 폭발이나 집단적 열광 상태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구분하며, 흥이 개인으로부터 출발해 집단으로 확장되는 정서의 흐름임을 강조한다<sup>1</sup> .

흥은 한국 전통예술에서 신체와 감정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유도하는 매개로 기능하며, 소리(음악), 몸(무용), 장단(리듬)이 상호작용하는 현장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굿, 탈춤, 농악, 판소리 등 다양한 전통 공연예술에서는 연행자와 관객이 함께 정서적 에너지를 생성하고 순환시키는 공동 창조의 과정을 통해 흥이 형성된다. 이 과정은 단순한 정서 표현을 넘어서, 감정의 해방, 신체의 확장, 공동체 구성원 간의 감응을 동반하는 수행적 구조로 작동한다. 특히 굿과 판소리와 같은 장르에서는 흥이 단지 연희자의 기술적 역량이나 표현을 넘어서, 관객과의 정서적 호흡 속에서 증폭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하나의 집단적 정서 공동체를 형성하게 만든다. 이와 같은 흥의 정서 구조는 몰입과 순환을 특징으로 하며, 전통 예술 전반에 흐르는 감정 표현의 기저를 이룬다. 무용의 맥락에서 흥은 단지 동작을 장식하는 외형적 요소가 아니라, 움직임의 동기이자 감정의 에너지로 작용한다. 이는 미리 정해진 동작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흐름이 신체를 자극하여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유도하는 과정이다. 예컨대 탈춤, 농악무, 민속무용 등에서 볼 수 있는 발 구르기, 상체의 흔들림, 눈짓, 웃음, 손짓 등은 흥이 고조될 때 신체에서 표출되는 즉흥적 표현으로, 감정의 흐름이 신체의 리듬과 결합하여 움직임으로 치환되는 전형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는 무용수의 감정이 단순히 내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간 속에서 신체를 통해 외화되는 실천적 과정이며, 흥이라는 정서가 동작의 내적 동력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무용학적으로도 중요한 분석 대상이다. 이와 같은 흥의 특성은 현대 한국무용 창작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예술적 자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전통 형식의 단순한 재현을 넘어서기 위해 감정적 에너지의 흐름, 즉흥성, 신체 반응성, 집단적 몰입감 등은 창작자에

계 전통을 재해석할 수 있는 감성적 기반을 제공한다. 동시대 무용 창작에 서는 흥의 본질을 신체의 움직임과 감정의 상호작용으로 풀어내며, 이를 통해 단절 없는 전통의 계승과 새로운 무용 어법의 확장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는 시도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전통 장단의 구조를 변형하거나 흥의 신체 반응성을 차용한 즉흥적 안무 구성은 현대무용과 전통무용의 경계를 유연하게 넘나들게 하며, 이 과정에서 흥은 단순한 정서적 기호가 아닌 예술적 구성 원리로 기능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흥은 한국인의 정서적 원형이자, 전통예술의 생동하는 에너지이며, 무용 창작에 있어서는 동작을 활성화시키는 심층적 감정 기반으로서 기능한다. 이러한 흥의 개념은 감정과 신체, 공동체와 예술이 하나의 흐름 속에서 결합되는 한국 전통예술의 미학을 이해하는 핵심적 단서일 뿐 아니라, 무용이라는 신체 예술에서 정서의 신체화를 분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 2.3 노동요와 흥의 상관성

노동요와 흥은 한국 전통문화 속에서 기능성과 정서성이 결합된 복합적 구조로, 단순한 음악적 실천이나 감정적 표현을 넘어선 공동체 기반의 문화적 실천으로 이해될 수 있다. 노동요는 본래 일정한 리듬과 구조를 통해 집단 노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협업의 호흡을 맞추는 실용적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적으로 불리고, 그 안에서 일정한 억양과 리듬이 형성되면서 단순한 작업 보조 음악의 기능을 넘어,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정서적 에너지를 환기시키는 장치로 작용하게 된다. 다시 말해, 노동요는 실용성과 정서성이 결합된 한국 고유의 구술 예술이자, 공동체 정서의 형성과 발산을 이끄는 원형적 표현 양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흥은 노동요가 지닌 반복성과 리듬성, 응답 구조를 통해 자연스럽게 유도되는 정서적 흐름이라 볼 수 있다. 노동요는 일반적으로 선창과후렴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 구조는 단순한 주고받기의 형식을 넘어서 구성원 간의 감정 교류를 유도하는 정서적 리듬을 형성한다. 일정한 속도와 억양으로 구성된 음형, 그리고 작업 동

작과의 유기적 일치는 공동체 내 감정 고양을 촉진하며, 이는 곧 흥이라는 내적 에너지를 점화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특히 장시간 지속되는 반복적 노동에서는 리듬의 몰입이 감정의 해방과 일체감을 유도하고, 이는 놀이 혹은 의례에 가까운 집단적 정서 체험으로 전환된다. 결과적으로 노동요는 노동의 과정을 감정적 에너지의 흐름이 생성되는 수행적 장으로 전환시키며, 그 중심에 흥의 발현이 자리한다.

흥은 노동요가 만들어내는 리듬과 정서 구조를 따라 발생하는 내면의 감정 흐름이자, 신체를 통해 외화되는 에너지로 볼 수 있다. 이 에너지는 단순한 정서의 고조를 넘어서, 노동의 반복성과 단조로움, 피로감을 감정의 몰입과 공감의 장으로 승화시키는 힘을 지닌다. 즉 노동요를 통해 유도되는 흥은 작업의 고단함을 해소하고 공동체의 감각을 하나로 묶는 정서적 매개체로 기능하며, 구성원 간 감정적 유대와 참여의 능동성을 강화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처럼 흥은 노동요 안에 내재한 정서적 본질이며, 공동체 속에서 신체와 감정의 흐름을 조율하는 감각적 언어라고 할 수 있다.

무용학적 관점에서 볼 때, 노동요와 흥의 상관성은 단지 음악과 감정의 결합을 넘어서, 신체 움직임과 감정 에너지가 상호작용하는 구조로 해석될 수 있다. 노동요 속의 리듬은 움직임의 반복과 완급, 강약 조절에 따라 동작의 구조를 형성하며, 흥은 그 구조 속에 감정의 깊이와 에너지를 더해주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이는 무용에서 ‘신체화된 감정’이라는 개념과도 밀접히 연결된다. 노동요의 리듬에 맞춰 몸이 움직일 때, 그것은 단순히 박자에 맞춰진 기계적 동작이 아니라, 정서가 리듬을 타고 신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분출되는 예술적 표현으로 읽힐 수 있다. 예를 들어, 발구르기, 몸의 흔들림, 상체의 움직임, 손의 박수와 같은 동작은 노동요에서 비롯된 리듬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성되며, 이는 감정이 리듬을 타고 몸으로 전이되는 전통적 신체 표현 방식의 실현이다.

무용수의 발짓, 몸짓, 표정은 모두 흥의 흐름을 따라가며, 이는 안무 구성에 있어 리듬적 구조와 감정적 흐름이 결합된 유기적인 표현 방식으로 확장된다. 특히 한국무용은 전통적으로 음악, 정서, 신체가 일체화된 예술 장르이기때문에, 노동요와 흥의 결합은 무용에서의 움직임의 근원, 표현 방식, 정

서적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데 있어 강력한 창작 자원이 된다. 또한 집단적인 리듬감과 즉흥적 표현은 무용수 간의 합과 호흡을 강조하는 한국무용의 미학과도 깊은 친연성을 갖는다.

결과적으로 노동요와 흥은 한국 전통문화 속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는 개념이며, 이 둘은 결코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는 유기적 관계를 형성한다. 노동요가 실용적 목적에서 비롯된 리듬적 언어라면, 흥은 그 리듬을 통해 발생하는 정서적 에너지이며, 이 둘은 함께 작동하면서 공동체 내에서 신체와 감정의 통합적 흐름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노동요와 흥의 결합은 전통 예술의 실천적 구조를 이해하는 핵심적 단서이자, 무용 창작에 있어 감정의 신체화와 집단적 리듬의 구조를 해석할 수 있는 이론적·실천적 기반으로 작용한다.

#### 2.4 무용학적 관점에서 본 노동요와 흥

무용은 인간의 감정, 신체, 리듬이 통합되어 나타나는 예술 장르로서, 감정의 흐름을 직접적인 신체 표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매체이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요와 흥이 내포한 정서와 리듬은 무용 창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예술적 자원이 된다. 특히 한국무용은 전통적으로 음악과 장단, 정서의 흐름, 그리고 공동체성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 노동요와 흥을 창작적 요소로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1) 노동요는 고된 노동을 덜어주기 위한 실용적 목적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구조와 분위기에는 리듬적 반복, 즉흥성, 감정적 표현이라는 무용의 핵심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일정한 장단 속에서 반복되는 구절, 동료와 주고받는 구음 구조, 그리고 몸의 동작과 일치하는 리듬감은 무용에서의 구성 원리와 유사하다. 또한 이러한 구조는 안무자의 창작 과정에서 동작 패턴이나 시퀀스를 만 들 때 자연스러운 모티프가 된다.

흥은 무용에서 ‘신체화된 감정’으로 구현되며, 특히 한국무용에서는 감정을 억제하거나 외적으로 과장하기보다, 내면에서부터 우리나라의 흐름과 리듬을 통

1) 김진순, “한국노동요의 기능과 역할”, 『한국민요학』 제24집, 2008, 84-85쪽

해 표현하는 방식이 중시된다. 흥은 이 흐름을 타고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2)민속무용, 탈춤, 농악무 등에서는 흥이 절정에 달하면 무용수의 움직임이 즉흥적이고 자유롭게 변주되며, 이로써 신체와 정서의 완전한 일체감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흐름은 창작무용에서도 유의미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전통 노동요의 리듬이나 흥의 정서를 기반으로 창작된 무용은 단순한 형식 차용을 넘어서, 전통 속 감정의 본질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실제로 현대의 한국무용 창작에서는 장단과 감정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 안무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안에는 흥의 에너지를 신체 움직임으로 번역하고자 하는 시도가 담겨 있다.

결국 무용학적으로 볼 때, 노동요와 흥은 한국무용의 본질적 가치와 맞닿아 있으며, 그 안에는 신체화, 공동체성, 즉흥성, 감정의 해방과 같은 다층적인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다. 이를 통해 무용은 전통의 계승을 넘어 새로운 창작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을 모색하게 된다.

---

2) 김혜정, “한국 전통 예술에서의 ‘흥’ 개념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제17호, 2012, 32-35쪽

## Ⅲ. 작품 개요

### 3.1 작품 형식 및 구조

본 작품 「흥의 노동, 노동의 흥」은 한국 전통의 구비문화인 노동요와 한국인의 정서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흥’의 개념을 중심으로, 두 요소가 현대 무용 언어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하는 창작 작업이다. 본 작품은 두 개의 명확한 장면으로 구성되며, 각 장은 ‘노동’과 ‘흥’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배치되었다. 이는 단순한 장면 구분을 넘어, 한국 전통문화의 기능성과 정서성, 그리고 그것의 현대적 전이 가능성을 드러내는 구조적 장치로 기능한다.

작품의 1장은 ‘노동’을 주제로 하여, 전통적인 노동요의 음악적 특성과 공동체적 노동의 신체성에 주목한다. 이 장면에서는 전통 노동요인 ‘에롱데롱’과 ‘얼카덩어리’를 원형 그대로 사용하는 한편, 무용수 중 한 명이 실제 장구를 연주함으로써 무용수의 몸 자체가 음악의 발생지로 작동하도록 하였다. 장구 연주는 단순한 반주를 넘어서 장단 자체가 움직임을 유도하는 구조로 기능하며, 나머지 무용수들은 그 리듬에 맞춰 공동체적 호흡과 노동의 반복성을 강조하는 안무를 전개한다. 이 장면에서는 일하는 몸의 리듬, 공동체 내부의 호흡, 그리고 반복적이되 점차 변주되는 동작을 통해 노동의 리얼리티와 생명력을 드러낸다. 전통 노동요의 구전적 성격과 기능적 속성이 이 장면에서 동시적으로 무대화되며, 이는 단순한 전통 인용을 넘어서 무용적 재해석을 위한 창작의 원천으로 활용된다.

2장은 ‘흥’을 중심 주제로 하여, 노동 이후 발현되는 유희성과 정서적 해방, 그리고 신체의 즉흥성과 집단적 감정 몰입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 장면에서는 장단의 전통적 구조를 기반으로 하되, 현대적인 사운드와 믹스된 음악이 사용되며, 이는 전통과 현대의 감각을 교차시키는 음악적 연출로 작용한다. 무용수들은 원형으로 앉아 노동의 잔재를 연상시키는 움직임을 이어가며

시작되는데, 이는 노동과 흥 사이의 정서적 연속성을 암시한다.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무용수들이 마치 화투를 치는 듯한 동작을 통해 놀이의 신체적 은유를 구현하며, 이는 단순한 오브제로서의 소품이 아니라 몸으로 표현된 ‘놀이의 감정’으로 기능한다. 이후 군무로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음악의 리듬이 점차 고조되고, 무용수들의 움직임은 반복성과 즉흥성을 교차하며 감정의 정점을 향해 치달는다. 이와 같은 흐름은 ‘흥’이란 개념이 단순히 즐거움의 표현이 아니라, 공동체적 에너지와 심리적 해방의 상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무대 구성에 있어서도 작품은 전체적으로 한국적 미감을 반영하되, 과도한 연출적 장치보다는 신체와 음악, 조명의 유기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조명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톤에서 시작하여, 장면이 전개됨에 따라 점차 밝아지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이는 새벽에 노동을 시작하여, 시간이 흐르며 저녁 무렵 흥이 고조되는 하루의 리듬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특히 조명의 변화는 각 장의 정서적 흐름과 맞물려 신체 움직임의 질감을 강조하는 효과를 주며, 공간의 밀도와 에너지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전체적으로 본 작품은 한국 전통문화 속에 내재된 공동체적 감각과 정서의 층위를 현대무용의 언어로 번역하는 시도로 기획되었으며, ‘노동’과 ‘흥’이라는 전통적 요소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무용창작에서 전통소재의 재해석 가능성을 실험하였다. 이로써 본 작품은 단순한 민속 재현의 차원을 넘어, 전통이 현대의 감각과 만나 예술적 감동과 새로운 몸의 언어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 3.2 작품의 구성요소 및 표현 매체

본 작품 「흥의 노동, 노동의 흥」은 한국 전통문화의 핵심 요소인 노동요와 흥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현대무용의 창작 어법으로 재해석하고자 다양한 표현 매체와 구성요소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였다. 본 작품의 예술적 언어는 음악, 리듬, 움직임, 무대 공간, 조명, 의상 등의 표현 수단을 통해 구현되었으며, 이들은 각 장면의 주제와 정서 흐름에 따라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작품 전체의 서사적 맥락을 형성한다.

먼저, 음악과 장단은 본 작품의 중심 매체이자 리듬 구조를 형성하는 근간 이되었다. 1장에서는 전통 노동요인 ‘에롱데롱’과 ‘얼카덩어리’를 원형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민속적 리얼리티와 전통 노동의 현장감을 고스란히 전달하고자 하였다. 또한 무용수 한 명이 직접 장구를 연주하는 장면을 배치함으로써, 신체가 음악을 생성하고 리듬을 주도하는 주체로 기능하게 하였다. 이는 단순히 음악을 배경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무용 형식을 탈피하여, 음악과 움직임이 하나의 생생한 퍼포먼스로 통합되는 구조를 만들어낸다. 2장에서는 장구, 북, 징, 팽과리 등 한국 전통 타악기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현대적인 음악적 텍스처를 믹스하여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사운드 구조를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흥’이라는 감정의 고조, 확장, 몰입이라는 정서적 흐름을 음악적으로 드러냈다. 움직임 구성에 있어서는 각 장의 주제에 따라 상이한 신체적 어휘가 사용되었다. 1장 ‘노동’에서는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동작을 중심으로, 집단적 호흡과 협동의 리듬감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노동의 실제 행위를 모사한 듯한 동작,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돌리는 듯한 자세, 낮은 중심의 이동 등은 신체의 물리적 부담과 집단의 일체감을 시각화하였다. 반면 2장 ‘흥’에서는 리드미컬하고 즉흥적인 움직임을 통해 신체의 해방과 감정의 분출을 표현하였다. 여기에는 도약, 회전, 팔과 상체의 유연한 흐름 등이 강조되었으며, 반복적인 리듬 속에서도 자유롭게 변주되는 움직임을 통해 ‘흥’이라는 감정의 유동성과 몰입을 구현하였다. 특히 화투를 치는 모습을 형상화한 춤 동작은 놀이의 해학성과 공동체적 감정 교류의 메타포로 기능하였다.

무대 공간 및 조명 또한 작품의 정서적 분위기를 강화하는 중요한 표현 매체로 작용하였다. 무대는 미니멀한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소품이나 장치 없이 무용수의 움직임과 조명 변화만으로 장면의 전환과 정서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조명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색조로 시작하여, 작품이 전개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밝아지는 구성을 취하였다. 이는 새벽에 시작된 노동이 정오를 지나 석양에 이르는 하루의 흐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감정의 긴장과 해방, 리듬의 밀도와 확장을 시각적으로 반영한다. 조명의 점진적 변화는 신체의 실루엣과 움직임의 질감을 더욱 뚜렷이 부각시킴으로써, 리듬과 감정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체험하게 만든다.

의상 구성 역시 작품의 주제와 정서를 함축하는 매체로 작용하였다. 무용수들은 상의는 밀착된 검정색 나시를 착용하고, 하의는 개량 한복 바지를 착용하였으며, 남성 무용수는 흑색, 여성 무용수는 분홍 계열의 바지를 착용함으로써 시각적 통일성과 상징적 대비를 함께 구현하였다. 검정색 상의는 신체의 선과 움직임의 구조를 강조하는 한편, 하의의 색 대비는 성별과 정서적 감수성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드러낸다. 이와 같은 의상 선택은 전통 의상의 실루엣과 현대적 간결성을 조화롭게 결합함으로써,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고자 하는 본 작품의 주제의식을 시각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작품은 음악, 리듬, 움직임, 조명, 의상 등의 표현 매체들이 서로 긴밀하게 얽히며 주제를 전달하는 통합적 무대예술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구성 요소는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전체 작품의 정서 흐름과 주제 전개를 지지하는 복합적인 매개로 작동하였다. 특히 본 작품은 전통 소재를 표면적으로 차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정서와 리듬, 공동체의 의미를 신체화하고자 하는 시도를 통해, 무용창작에서의 전통 해석과 표현 방식에 대한 확장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3.2.1 움직임 표현 방법

본 작품에서의 움직임 표현은 단순한 안무의 나열이 아닌, 주제의식과 정서 흐름에 기반한 의도적 신체 표현의 결과물이다. ‘노동’과 ‘흥’이라는 상반되면서도 상호 연결된 전통 개념은, 각각 움직임의 질감, 리듬, 에너지, 공간 사용 방식 등에 영향을 미치며 서로 다른 신체 언어로 구현되었다. 따라서 본 작품은 각 장면의 정서적 맥락에 따라 움직임의 생성 원리와 표현 방식이 뚜렷하게 구분되고, 동시에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지닌다.

1장 ‘노동’에서는 리듬성과 반복성이 주요한 움직임 원리로 작용하였다. 전통 노동요의 일정한 박자와 장단 구조에 따라 움직임이 구성되었으며, 이는 노동의 현실성을 강조하고자 한 의도적 전략이다. 무용수들은 신체의 무게감을 드러내는 낮은 중심, 팔과 다리를 이용한 견고한 동작, 그리고 힘의 중심 이지면과 밀접하게 작용하는 움직임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예를 들어, 마

치 벼를 베거나 돌을 나르는 듯한 모티프는 실제 노동 행위를 연상시키며, 이를 통해 동작 하나하나가 노동의 신체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표상적 기제로 작용하였다.

특히 장구 장단에 맞춰 구성된 군무에서는, 타악기 리듬이 움직임의 시발점이자 구조적 뼈대 역할을 하며, 무용수 개개인의 움직임이 단순한 개인의 표현을 넘어 집단의 호흡과 협동의 리듬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집단적 동작은 공동체적 정서를 드러내며, 한국 전통무용에서 중요한 가치인 ‘합’(合)과 ‘맥’(脈)의 미감을 구현하는 데 기여하였다.

2장 ‘흥’에서는 1장에서 나타났던 무게감과 규칙성이 점차 해체되고, 즉흥성, 유희성, 유동성이 강조된 움직임으로 전환된다. 이 장면에서 무용수들은 자유롭게 공간을 넘나들며, 리듬에 대한 반응을 보다 주관적이고 개별적인 방식으로 표현한다. 팔과 상체의 유연한 흐름, 돌출된 리듬에 대한 반응적 동작, 비대칭적 구조의 움직임 등은 ‘흥’이라는 감정의 다층성과 불확정성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둔 구성이다. 특히 무용수들이 마주 앉아 화투를 치는 동작을 모티브로 한 장면에서는, 손끝의 세밀한 제스처와 상호 교감적인 시선 처리가 강조되며, 움직임이 하나의 놀이적 내러티브로 확장된다.

군무로 이어지는 후반부에서는 리듬이 급속히 고조되며 움직임의 밀도와 강도가 증폭되고, 무용수들은 동일한 장단에 반응하되 각자의 신체적 해석을 바탕으로 움직임을 전개한다. 이때 사용된 움직임은 일정한 패턴을 따르기보다는 ‘흥’의 감정 흐름에 따라 자유롭게 조율되며, 이는 한국무용에서 나타나는 신명과 탈춤의 즉흥성, 나아가 탈진에 이르는 몰입의 과정을 연상시키는 표현 방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본 작품에서는 움직임이 음악에 종속되지 않고, 음악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리듬을 창출해내는 관계로 설계되었다. 즉, 움직임은 단순히 음악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음악을 선도하거나, 의도적으로 어긋나면서 긴장감을 조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전략은 움직임과 음악, 신체와 소리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드러내며, 전통 장단과 현대 무용어법의 융합이라는 본 작품의 주제의식을 더욱 명확히 구현한다.

마지막으로 공간 구성 측면에서도 움직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장에서는

선형적, 수평적 공간 이동을 주로 활용하여 작업장의 질서를 상징하는 반면, 2장에서는 원형, 곡선형, 비선형적 이동이 강조되며 이는 자유롭고 유희적인 감정을 시각화한다. 움직임의 궤적 자체가 감정의 흐름이자 공동체의 상호작용을 드러내는 상징적 장치로 기능한다.

이처럼 본 작품의 움직임 표현은 단순한 안무적 기교가 아니라, 전통 정서의 현대적 재현을 위한 신체적 언어로 기능하며, 전통과 현대, 기능과 감정, 집단과 개인을 넘나드는 역동적 표현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 3.2.2 의상

본 작품 「홍의 노동, 노동의 홍」에서의 의상은 작품의 주제인 ‘노동’과 ‘홍’의 정서를 시각적으로 담아내는 중요한 표현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의상은 단순한 시각적 장식이 아니라, 신체의 움직임을 강조하고,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나타내며, 성별 및 장면 간의 분위기 차이를 유기적으로 표현하는 조형적 장치로 작용하였다.

무용수들의 상의는 모두 동일하게 밀착된 검정색 나시를 착용하였는데, 이는 상체의 근육과 선, 움직임의 세부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한 선택이다. 무대 조명이 어두운 톤에서 점차 밝아지는 구도였기 때문에, 검정색 상의는 조명에 의해 드러나는 신체 윤곽을 선명히 부각시켰으며, 특히 반복적이고 집단적인 움직임 속에서 개별 신체의 에너지와 호흡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하의는 전통 복식에서 모티프를 얻은 계량 한복 바지를 착용하였다. 남성 무용수는 먹색 계열의 바지, 여성 무용수는 핑크색 계열의 바지를 착용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색상 대비를 주었으며, 전체적인 의상 톤의 통일성은 유지하면서도 각자의 움직임에서 개성과 정서적 분위기를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계량 한복 바지는 전통 바지 특유의 넉넉한 실루엣을 간결하게 재해석한 형태로, 허벅지와 무릎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러운 주름과 실루엣의 흐름을 통해 신체의 리듬과 무게감을 강조하였다.

특히 특징적인 부분은 허리에 감은 계량 저고리이다. 전통 저고리를 상체에

착용하는 방식이 아닌, 허리에 묶는 형태로 재구성함으로써 전통적 상징 요소를 현대적 방식으로 재배치하였다. 이는 의상에 리듬감을 부여하고, 무대 조명의 움직임에 따라 생기는 섬세한 원단의 결을 통해 정서적 흐름을 더욱 풍부하게 시각화하였다. 이 허리 장식은 마치 작업 중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나, 노동 도구의 매무새를 연상시키는 시각적 상징으로도 기능하여, 작품의 주제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또한, 전통적인 요소를 차용하면서도 전체적인 의상은 현대적인 절제미와 기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무대 위에서 무용수들이 수행하는 빠르고 반복적인 동작, 지면과의 밀착된 동작 수행, 즉흥성과 놀이성을 갖는 자유로운 움직임 등을 고려할 때, 이 의상은 기능적으로도 매우 적절한 선택이었다. 신체의 선과 에너지를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드러내고, 무대의 톤과 어우러지는 색상 조합을 통해 작품의 정서적 깊이와 시각적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작품의 의상은 단지 무용수의 외형을 꾸미는 수준을 넘어 서, 작품이 담고 있는 전통과 현대의 융합, 노동과 흥의 이중적 정서, 남녀의 신체적 개성과 집단적 에너지의 흐름을 시각적·상징적으로 해석한 통합적 매체로 작용하였다.



[사진 3-1]



[사진 3-2]

남자 무용수 의상



[사진 3-3]



[사진 3-4]

여자 무용수 의상

### 3.2.3 조명

본 작품 「흥의 노동, 노동의 흥」에서 조명은 단순한 시각적 장치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과 정서의 전이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서사적 도구이자 감정적 매개체로 작용하였다. 조명 디자인은 작품의 전개 구조와 정서적 밀도에 따라 점진적이고 유기적인 방식으로 조절되었으며, 각 장면의 상징성과 움직임의 질감을 더욱 효과적으로 부각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작품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조명 톤에서 시작하여 점차 밝아지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이는 새벽녘 어슴푸레한 어둠 속에서 하루의 노동이 시작되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빛이 들어오고, 마지막에는 석양과도 같은 따뜻하고 확장된 빛의 감도로 마무리되는 하루의 리듬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조명 구성은 작품의 1장 ‘노동’에서 2장 ‘흥’으로 이어지는 흐름, 즉 현실적 노동의 강인한 에너지에서 정서적 해방과 유희로의 전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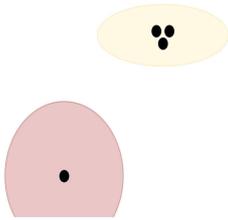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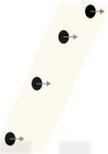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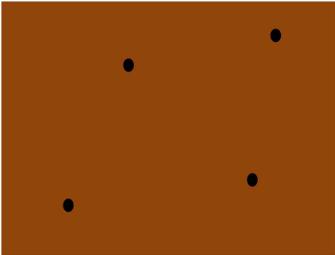
1장에서는 붉은 기가 섞인 따뜻한 저조도 조명이 사용되었으며, 이는 노동의 물리적 무게감과 피로, 그리고 반복적 행위에서 비롯되는 생체 리듬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적 설계였다. 또한 무용수들의 움직임이 지면과 밀접한 신체 중심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하향식 조명은 신체의 실루엣과 지면의 그림자를 더욱 명확히 드러내어 ‘일하는 몸’의 밀도감과 질감을 부각시켰다.

반면 2장으로 넘어가면서 조명은 점진적으로 색 온도가 상승하며 밝아지고, 공간 전체를 고르게 채우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때 조명의 방향도 하향식 위주에서 측면 및 후광 조명까지 확대되며, 무용수 개개인의 움직임뿐 아니라 그 사이의 공간적 긴장감, 상호작용, 리듬의 교차점을 시각적으로 강조하였다. 특히 화투 장면 이후 이어지는 군무에서는 조명이 무용수들의 동선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움직이며, 무대 전체에 생동감과 몰입감을 불어넣었다. 중요하게 언급할 점은, 본 작품에서는 깜빡이거나 과도하게 전환되는 플래시 조명이나 특수조명은 일절 사용하지 않았으며, 전체 조명 연출은 최대한 절제된 방식으로 감정의 선과 신체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작품의 주제인 전통과 공동체의 리듬, 감정의 고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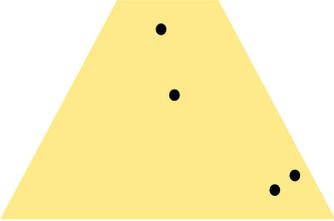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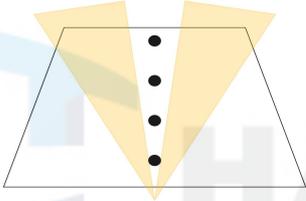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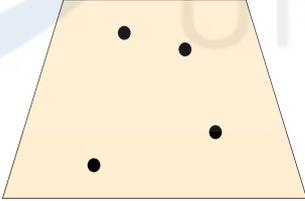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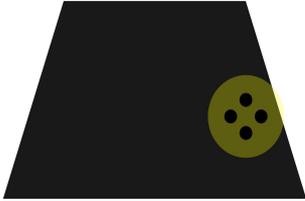
이완이라는 구조적 흐름에 집중하고자 한 연출적 결정이었다. 결과적으로 조명은 본 작품에서 단지 시각적 보조 수단이 아니라, 작품의 정서 구조와 시간성, 신체와 공간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직조하는 핵심적 표현 요소로 기능하였다. 무대의 빛은 움직임의 강약, 리듬의 변화, 정서의 밀도와 맞물리며, 관객으로 하여금 작품의 흐름에 감각적으로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서사적 장치로 작동하였다.



[표 3-1]

장면	동선 및 조명	조명 플랜	소요 시간
		1. 하수 다운스태이지 - 어두운 붉은계열 조명 2. 업스태이지 센터 - 실루엣만 보이게 어두운 노랑조명 (해가뜨기전 어두운 새벽 연출)	11분 40초
1장		3. 상수를 바라보며 이동중 - 어두운 흰색 조명 (새벽 안개를 연출)	11분 40초
		4.센터 원이 큰 편조명 - 밝아진 주황빛 조명 (해가튼 아침을 연출)	
		5.무대 전체 어두운 붉은 조명 (뜨거운 햇빛을 연출)	

[표 3-2]

장면	동선 및 조명	조명 플랜	소요 시간
2장		<p>1. 폭이 넓은 길조명 -노랑 조명 (흥이 시작되는 장면)</p>	6분
		<p>3. 상수.하수 업스테이지 풋조명으로 무용수들의 실루엣만 남을수있게 -어두운 노랑조명사용 (흥을 내기위한 집단의 모습)</p>	
		<p>4. 무대 전체에 흰색 조명과 노랑조명 (흥의 에너지를 최대한 끌어올려 신명나게 흥을 내는 장면)</p>	
		<p>5. 실루엣만 비추는 핀조명 -어두운 노랑조명 (노동을 끝마치고 하루가 지나가는 모습을 연출)</p>	

[표 3-3] 색의 감정 및 심리적 효과(안현숙, 1994, p23)<sup>3)</sup>

색상	감정	심리적 효과
적색(Red)	따뜻한	흥분, 희열, 환희, 정열, 애정, 걱정, 노기, 분노, 혁명, 활력, 적극, 지성, 용기, 위험
황적색(Yellow Red)	적극적, 자극적	유혹, 경계, 기쁨, 활발, 원기
황색(Yellow)	활동적, 온화함	태양, 황금, 쾌활, 유쾌, 명랑, 활동, 적극, 활기, 환희, 희망, 광명, 발전, 원기, 권력
녹색(Green)	중용, 평정	평온, 평안, 평화, 느긋, 불변, 정조, 충절, 이상, 안전, 안식, 신선, 젊음, 성장, 중용
보라색(Violet)	평범함	우아, 고귀, 신비, 매력, 온순, 정숙, 엄숙
청록색(Blue Green)	차가움, 서늘함	안식, 서늘, 우울, 신비, 침착
청색(Blue)	소극적	침착, 쓸쓸, 비애, 심원, 병상, 진실, 이지, 이상, 영원, 희망, 평정, 유구, 거룩, 학문
청자색(Blue Purple)	침정적, 시원함	우아, 숭고, 고독
자색(Purple)	여성적, 음기, 온난, 복종	우아, 거만, 고상, 고귀, 신비, 환상, 장관, 장중, 영혼, 종교, 애도, 부호
적자색(Red Purple)	음산함, 중압감, 화려함, 흥분감	욕정, 비속, 화려, 현란, 심상, 거만, 허영, 호색, 희열, 양기, 사치, 마비, 비속, 경솔
백색(White)	양기, 명랑함	환희, 명쾌, 순수, 시원, 결백, 청결, 신성, 청조, 신앙, 소박, 위엄, 불길
회색(Gray)	침착함, 차분함	침착, 중용, 평범, 온화, 검의, 요령, 부득, 음울, 억울, 우울, 중립, 중성, 소극, 공포
흑색(Black)	음기, 중후함	비애, 절망, 침묵, 공포, 불안, 죄악, 위엄, 엄숙, 사멸, 강건, 성실, 부정, 죽음
주황색(Orange)	신선함, 발랄함, 느긋함	열렬, 격심, 정열, 강인, 혐오, 질투, 온화
연분홍색(Light Pink)	평화, 온화함	상냥, 사랑스러움, 우아
다홍색(Cherry Red)	고상함, 침착함, 차분함	침착, 차분, 평화

3) 구자현, (2009). 『무용예술에 있어 무대조명에 관한 사례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p.

### 3.2.4 음악

본 작품 「홍의 노동, 노동의 홍」은 한국 전통 노동요와 장단, 그리고 현대적인 음악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음악 구조를 바탕으로 창작되었다. 음악은 이 작품에서 단지 무용의 배경음이나 보조 수단에 머물지 않고, 움직임의 리듬을 형성하고 감정의 곡선을 유도하며, 전체 서사를 조직하는 핵심 매개체로 기능한다. 특히 작품에 사용된 음악은 전통 타악기의 장단과 구비 전승된 노동요의 소리, 그리고 현대적 전자음향이 혼합된 방식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전통성과 현대성을 동시에 아우르는 다층적 음악 환경을 구축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음악은 각 장면의 정서적 분위기와 무용수의 움직임을 섬세하게 조율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전통 장단은 특정 동작의 리듬감을 제공하고, 노동요의 반복적 선율은 집단적 에너지의 흐름을 강화하며, 현대적인 사운드는 감정의 고조와 해방을 촉진하는 장치로 사용된다. 이를 통해 음악은 단순한 청각적 배경을 넘어 무대 위의 모든 요소들과 긴밀하게 교차하는 구조적 축으로 기능하며, 안무의 흐름과 감정의 전개를 유기적으로 조직한다.

작품의 전체적인 구성 또한 음악의 흐름에 따라 유기적으로 전개된다. 예컨대, 1장 ‘노동의 시간’에서는 전통 노동요인 ‘에롱데롱’과 ‘얼카덩어리’를 중심으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리듬이 강조되며, 이는 노동의 단조로움과 신체의 기계적인 움직임을 표현하는 데 적합한 음악적 환경을 제공한다. 장구 장단이 삽입된 장면에서는 무용수의 직접적인 연주 행위를 통해 음악과 신체, 그리고 무대 공간이 하나의 호흡으로 결합된다. 이러한 장면은 음악이 단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용수의 몸으로부터 생성되는 ‘내재된 리듬’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상징성을 갖는다.

2장 ‘피어나는 홍’에서는 전통 타악기와 현대 전자음악이 혼합된 음악이 사용되며, 점진적으로 고조되는 리듬 구조를 통해 무대 위 감정의 확산과 홍의 분출을 유도한다. 음악은 개별 무용수의 내면 감정이 집단적 정서로 확장

되는 과정을 견인하며, 이는 무대 전체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관객의 감각적 몰입을 강화하는 효과로 이어진다. 이처럼 음악은 정서적 고양, 무용적 움직임의 질감 형성, 장면 간 서사적 연결 등 다층적인 방식으로 작품 전개를 지배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한다.

결국 본 작품에서 음악은 단순히 리듬을 제공하거나 배경을 채우는 역할을 넘어, 무용의 흐름을 이끌고 정서를 확장시키는 하나의 ‘움직이는 서사’로 기능한다. 음악과 움직임은 상호 독립적인 두 예술 요소가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처럼 맞물려 작동하며, 전통과 현대, 공동체성과 개인성, 반복과 즉흥이라는 다양한 층위의 예술적 긴장을 통합한다. 이는 전통예술의 요소를 현대 창작 무용의 언어로 재해석하려는 시도이며, 음악이 무용과 동등한 예술적 지위를 갖는 창작 방법론으로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 1. 전통 노동요의 기능적 활용

1장 ‘노동’에서는 전통 노동요인 「에롱데롱」과 「얼카덩어리」가 음악의 주된 기반이 되었다. 이들 노동요는 한국 전통 사회에서 실제로 사용되었던 민요로, 공동체 노동 현장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을 조율하고, 노동의 고단함을 덜어주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 작품에서는 해당 음악들을 원형 그대로 사용하여, 소리의 질감과 민속적 리듬, 그리고 노동요 특유의 구두적 에너지를 고스란히 무대 위로 끌어올렸다.

노동요는 기본적으로 반복적인 박자 구조와 단순한 선율, 구호적인 가사를 특유직업의 패턴화와 리듬화에 매우 적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음악적 특성은 합하며, 무용수들의 신체 리듬을 자연스럽게 음악에 동기화시키는 효과를 지닌다. 특히 반복적 리듬은 노동의 지속성과 집단성을 강조하는 데 효과적이었으며, 이러한 리듬 위에서 안무는 단순 모티프의 반복과 변형을 통해 점층적인 구조를 형성하였다.

또한 노동요의 활용은 무대 위에 전통적 삶의 시간성과 공간성을 불러일으키는 장치로 작용하였다. 이는 작품의 시공간적 배경을 명확히 설정함과 동시에, 관객으로 하여금 노동의 리얼리티와 신체의 리듬감을 감각적으로 체험하게 만드는 감각적 고고학으로 기능하였다.

## 2. 무용수의 장구 연주와 실시간 리듬 생성

1장 중간부에는 무용수 중 한 명이 실제로 장구를 연주하는 장면이 삽입되었다. 이 장면은 단지 음악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음악이 무용수의 몸에서 직접 발생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상징성과 창작 전략을 내포하고 있다. 장구 연주는 전통 장단 구조를 기반으로 하되, 즉흥적이고 힘 있는 타법으로 표현되었으며, 무용수의 신체와 악기가 하나의 유기체로 결합되어 리듬을 창

출하는 ‘움직이는 악기’로서의 신체 표현을 실현하였다.

이러한 실시간 연주는 단순히 시각적이거나 청각적 장면을 넘어, 신체-소리-공간 간의 역동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관객의 몰입을 유도하였다. 나머지 무용수들은 장구의 리듬을 청각적으로 감지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 움직임의 전개하였다. 이처럼 신체가 소리를 만들고, 소리가 다시 신체를 움직이게 하는 구조는 작품의 핵심 창작 원리 중 하나이며, 리듬을 단순한 시간 단위가 아닌 공동의 에너지 흐름으로 확장시킨다.

### 3. 전통 타악기와 현대 음악의 믹스

2장 ‘홍’에서는 한국 전통 타악기(장구, 북, 징, 팽과리 등)와 전자 음악적 요소를 혼합한 사운드 구성이 사용되었다. 전통 장단의 구조적 기반을 유지하되, 현대적인 사운드 질감과 반복적 루프(Loop) 형식, 그리고 미세한 비트 변화를 삽입함으로써 전통의 감각을 동시대적 정서로 재해석하였다.

이러한 음악 구성은 ‘홍’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홍’은 한국인의 정서적 기반으로, 신체적 몰입과 감정의 이완, 공동체 내의 에너지 교류에서 발현되는 정동(emotion)이다. 2장에서의 음악은 반복적으로 고조되는 리듬 구조와 리드미컬한 타악 음향을 통해 홍의 정서적 밀도와 절정으로의 상승을 유도하였다. 무용수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리듬에 반응하며, 음악은 동일하지만 움직임은 개별적으로 분화되는 ‘개인화된 홍’의 장면을 구성하였다. 이는 단순한 집단 군무가 아닌, 공유된 리듬 위의 개별적 감정 표현이라는 확장된 해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 4. 음악과 움직임의 상호작용

본 작품에서 음악은 단순히 움직임에 따라가는 수동적 배경음이 아니라, 움직임을 유도하고 전개를 이끄는 주체적인 표현 도구였다. 1장에서는 음악이 규칙적인 리듬을 제공하여 움직임의 프레임을 설정하고, 2장에서는 음악이 감정의 흐름을 타고 상승하면서 움직임의 에너지와 강도를 확장시켰다. 또한 때

때로 음악은 무용수의 움직임과 고의적으로 어긋나거나 대비되며, 리듬의 긴장과 해소를 통해 감정의 입체감을 형성하였다.

작품 전체적으로 음악은 신체와 조명, 무대 공간과 상호작용하면서, 시간의 흐름과 정서의 변화, 공동체적 리듬과 개인적 표현이라는 이중 구조를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다층적 구성은 음악이 단지 들리는 것을 넘어서, 보이고 느껴지고 움직이게 하는 청각적 무대 미학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 3.2.5 소품



[사진 3-5]

#### 장구

본 작품 「홍의 노동, 노동의 홍」에서 사용된 장구는 단순한 악기 소품을 넘어, 작품의 주제적 맥락과 정서적 구조를 강화하는 핵심적인 상징 장치로 기능하였다. 장구는 본래 한국 전통 음악에서 중심 리듬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타악기로, 본 작품에서는 이 전통적 속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해석과 상징성을 부여한 방식으로 소품화되었다.

소품으로서의 장구가 본 작품에서 가지는 의미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장구는 리듬의 실체이자 움직임의 촉매로 기능하였다. 본 작품은 전체적으로 전통 노동요와 장단에 기반을 둔 구조를 지니며, 리듬에 따른 신체 움직임의 발생과 확장이 작품의 중심 축이다. 장구는 이러한 리듬의 출발점이자 실시간 생성 도구로서, 무용수의 신체를 통해 타격되고, 그 리듬에 의해 다른 무용수들의 움직임이 유도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작

품 내에서 음악과 움직임의 즉각적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는 실천적 장치이며, 장구의 존재 자체가 작품의 흐름을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장구는 전통성과 현대성의 연결을 시각적으로 매개하는 도구로 작용하였다. 작품 초반부에서는 장구가 컴퓨터 키보드처럼 다루어지며, 이는 현대인의 단조롭고 기계적인 노동을 은유한다. 이후 본래의 악기로 전환되며 리듬을 창출하기 시작하는 장면은, 현대적 소외된 노동이 한국 전통의 공동체적 리듬 속으로 전환되는 서사적 흐름을 상징한다. 장구는 이러한 변화를 구현하는 구체적 기호로서, 전통 문화가 단순히 복원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대적 맥락 속에서 새롭게 의미화되는 지점을 제시한다.

셋째, 장구는 공동체적 에너지의 중심에 위치한 집단적 상징물로 기능하였다. 두 번째 장면에서 무용수들이 장구 주위에 모여 흥을 타고, 그 리듬 위에서 개별적 즉흥 동작과 놀이적 표현을 수행하는 장면은, 장구가 단지 소리를 내는 도구를 넘어, 공간적 중심이자 감정적 연결점임을 보여준다. 무대 중앙에 위치한 장구는 단지 연주자가 타는 악기가 아니라, 집단적 에너지의 발산을 이끌어내는 구심점이며, 이를 중심으로 무용수들의 리듬, 시선, 감정이 서로 얽히고 확장된다.

이처럼 본 작품에서 장구는 기능적 악기, 움직임 유도 장치, 상징적 소품, 그리고 정서적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며, 작품의 주제와 구조를 물리적, 감각적으로 연결하는 통합적 도구로 작용하였다. 만약 장구라는 소품이 부재했다면, 작품은 리듬과 움직임, 정서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하게 되었을 것이며, 작품의 상징성과 공동체성을 시각화하는데 있어서도 중대한 결손이 발생했을 것이다. 따라서 장구는 본 작품에서 단순한 무대 소품을 넘어, 주제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자리매김된다.

## IV. 작품 분석

### 1. 작품 제목 및 주제 : 「홍의 노동, 노동의 홍」

작품 「홍의 노동, 노동의 홍」은 한국 전통문화 속에서 깊이 자리하고 있는 노동요와 홍의 관계성을 중심 주제로 한다. 노동요는 공동체의 협동과 생존의 리듬을 상징하며, 홍은 그 안에서 피어나는 감정의 해방과 신명의 순간을 의미한다. 이 두 요소는 기능적으로는 상반되지만, 한국인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연결되어 순환되는 구조를 가진다.

본 작품은 바로 이 연결 고리에 주목하였다. 노동과 홍을 분리된 개념이 아닌 하나의 정서적 흐름으로 구성하고, 그것을 한국무용의 신체성과 리듬을 통해 무대 위에 구현함으로써, 삶 속의 에너지와 예술의 본질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묻고자 하였다. 노동의 무게감과 홍의 가벼움이 오히려 서로를 지탱하는 정서임을 확인하는 과정은, 오늘날의 분절된 삶과 공동체 안에서 더욱 유의미하게 다가온다.

### 2. 작품 의도

이 작품은 단순한 재현이 아닌, 삶의 리듬을 되살리는 무대적 실천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작가는 노동요를 접하면서, 그것이 단순한 민속 노래가 아니라 몸으로 기억되고 전해지는 노동의 언어임을 확인하였다. 리듬은 곧 몸이고, 몸은 삶의 기록이며, 무용은 그 흐름을 다시 불러오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본 작품은 ‘움직임을 통한 기억의 회복’을 중요한 창작의 축으로 삼았다.

또한 ‘홍’은 한국인의 정서적 자산이자, 공동체가 고단한 삶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감정을 발산하며 연결되던 방식이었다. 홍은 혼자서는 완성되지 않고, 함께일 때 더욱 진해지고 깊어진다. 본 작품에서는 이러한 홍의 성격을 집단적 리듬, 놀이적 움직임, 즉흥성과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풀어내고자 했다.

결과적으로 이 작품은 전통의 재현이 아니라 정서의 재해석, 그리고 한국무용

이 지닌 리듬성과 공동체성의 현재적 구현이라는 창작 의도를 담고 있다. 전통이란 박물관 속 유물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 숨 쉬는 감각이라는 것을 몸으로 증명하는 시도였다.

### 3.작품 내용

작품은 두 개의 장면으로 구성되며, ‘노동’에서 시작해 ‘흥’으로 이어지는 정서적 전이의 구조를 따른다. 전체적으로는 마치 새벽에 노동을 시작해 저녁 무렵 놀이와 흥으로 정서를 풀어내는 하루의 흐름처럼 구성되었다.

1장 ‘노동’은 전통 노동요 「에롱데롱」으로 시작된다. 남성 무용수는 장구 앞에 앉아 마치 현대 사무직 근로자처럼 그것을 두드리며 현대적 노동의 메타포를 암시한다. 이후 점차 장구를 실제 장단으로 연주하기 시작하면서, 현대적 고립된 노동이 전통의 공동체적 리듬으로 이행되는 장면이 전개된다. 다른 무용수들이 이 리듬에 반응해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반복적인 움직임 속에서 무게, 중심, 그리고 호흡이 살아난다. ‘얼카덩어리’가 흐를 때쯤에는 몸은 완전히 일하는 신체로 전환되고, 노동의 생명력과 반복의 에너지가 무대 위에 드러난다.

2장 ‘흥’은 분위기를 전환시킨다. 전통 타악기와 현대 사운드가 결합된 음악 속에서, 여성 무용수가 장구를 연주하고, 다른 무용수들은 그 리듬에 맞춰 흥을 타듯 움직인다. 그들은 원을 그리며 모이고, 장난을 치듯 춤을 추며, 마치 화투를 치는 손동작을 모티브 삼아 유희적 움직임을 전개한다. 이 장면은 단순한 놀이의 표현이 아니라, 감정의 해방, 공동체 내 에너지의 분출, 그리고 신명으로의 상승을 보여준다.

작품의 말미에는 움직임이 점차 이완되고, 리듬도 고요해지며, 마치 해가 지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듯한 분위기로 정리된다. 이는 감정과 에너지가 흥으로 고조되었다가 다시 사그라드는 자연스러운 감정의 주기를 반영하며, 전통적 삶의 시간성과 몸의 흐름을 무용으로 되살린다.

안무	이태웅
출연	이태웅 이재인 김형민 이정연
음악	1장:에롱데롱,얼카덩어리,무용수가 연주하는 장구장단 2장:작곡 (작곡가:목기린)
소품	장구
작품시간	17분40초

#### 4.1 1장: 노동의 시간

##### 4.1.1 내용 및 안무 의도

작품의 1장은 ‘노동’을 주제로, 일터로 향하는 몸 → 공동체적 노동 → 휴식과 놀이로의 이행이라는 흐름으로 구성된다. 장면은 무용수들이 무대 가장 자리에서 천천히 입장하며 시작되며, 이때의 움직임은 한국무용 특유의 낮은 중심과 느린 호흡으로, 노동을 앞둔 몸의 무게감을 표현한다.

이후 전통 노동요 「에롱데롱」이 들리며, 장구를 연주하는 무용수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노동 장면이 전개된다. 무용수들은 장단에 맞춰 반복적이고 묵직한 동작을 수행하며, 공동체적 호흡과 협업의 리듬을 강조한다. 움직임은 무게 중심 이동, 곡선적 궤적, 신체 간의 동기화로 구성되며, 노동의 에너지와 신체의 리듬화를 시각적으로 드러낸다.

장면 후반에는 리듬이 점차 느려지고, 무용수들은 앉거나 기대며 쉬는 동작으로 전환한다. 이 짧은 ‘쉬는 시간’ 장면은 에너지의 이완과 감정의 전환을 상징하며, 이후 등장할 ‘흥’ 장면으로의 정서적 전이를 유도한다. 일부 무용수들은 화투를 치는 듯한 움직임에 의해 놀이적 감각을 암시하며 장면은 마무리된다.

결과적으로 1장은 삶 속의 리듬과 신체의 움직임, 노동과 감정의 관계를 한국무용의 호흡과 장단을 통해 표현하며, 전통 노동의 신체성과 공동체의 감각을 현대 무대 위에 재구성한 장면이라 할 수 있다.

#### 4.1.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1장의 움직임은 마치 새벽의 몸처럼 시작된다.

무용수들은 천천히, 아주 낮은 중심으로 무대에 들어서며, 마치 땅을 밟는 감각을 되살리듯 지면과 맞닿는 발의 감촉, 발뒤꿈치의 무게, 척추의 정렬에 집중한다. 이는 단지 이동이 아니라 노동을 향해 가는 몸의 준비이며, 정적인 침묵 속에서도 내면의 리듬이 꿈틀거리는 장면이다.

이윽고 장구의 장단이 울리기 시작하면, 몸은 점차 박자에 반응하며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때의 동작은 규칙적이되 단조롭지 않고, 반복적이되 기계적이지 않다. 무릎을 굽혔다 펴는 탄성과 상체의 회전, 손끝에서 허리까지 이어지는 부드러운 곡선은 하나의 큰 호흡처럼 이어진다. 움직임은 항상 무게를 품고 있고, 일을 견디는 몸, 그러나 일에 순응하지 않는 몸으로서의 긴장과 해소를 동시에 표현한다.

특히 인상적인 점은 움직임 사이사이 흐르는 ‘틈’이다. 박자와 박자 사이, 동작과 동작 사이에는 아주 짧은 숨뿜의 순간이 존재하며, 이 ‘틈’이야말로 노동이라는 반복 속에서도 개별의 감각과 감정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이다. 이 틈에서 시선이 흐르고, 땀이 흐르며, 숨이 쌓인다. 안무는 이를 과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함으로써, 관객이 리듬을 듣는 동시에 느끼도록 유도한다.

군무는 흠어짐 없이 맞물려 있으면서도, 모든 무용수가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

는다. 각자의 속도와 각도의 차이가 섬세하게 배치되어, 한 장단 안에서 여러 개의 리듬이 공존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움직임이 살아 숨 쉬는 전통 노동의 질감을 구현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중간에 등장하는 장구 연주는 단순한 음악이 아닌,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촉매이다. 장구를 두드리며 여성 무용수의 손끝에서 울리는 박자는 공간 전체에 퍼지며, 나머지 무용수들의 몸을 하나씩 깨운다. 이 연주자 역시 단지 연주자에 머물지 않고, 무대 위에서 리듬을 조형하는 무용수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무용수들이 원을 이루며 앉아 쉬는 모습이 연출된다. 이 순간엔 에너지가 줄어드는 장면이 아니라, 노동의 여운이 고요하게 퍼지는 장면이다. 손으로 땀을 훔치거나,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안무의 연장선상에 놓인 감정의 움직임이다. 그리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놀이적 몸짓, 화투를 치는 듯한 동작은 다음 장면 '흥'으로 넘어가는 감정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한다.

1장은 그렇게 마무리된다. 무거운 몸으로 시작해, 리듬을 타고 흐르고, 다시 고요하게 정리되는 흐름. 그 모든 과정에서 안무는 '노동'이라는 주제를 과장 없이 담백하게 풀어내며, 신체의 리듬과 정서의 호흡을 섬세하게 조율하며 관객에게 한국무용 특유의 몸의 감각을 선사한다.



[사진 4-1]  
새벽 일터로 가는 모습



[사진 4-2]  
공동체적 노동 모습



[사진 4-3]  
휴식과 놀이로의 이행

### 4.1.3 음악

1장은 세 개의 음악 흐름으로 구성된다.

처음은 전통 노동요 「에롱데롱」으로 시작된다. 이 음악은 느리고 단조로운 리듬이 특징이며, 무용수들이 노동하러 가는 길에 조용히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장면과 맞물려, 일상과 노동의 경계에서 형성되는 몸의 준비 상태를 표현한다.

두 번째로는 무용수 한 명이 무대 위에서 직접 장구를 연주하며 장면이 전환된다. 이 장단은 전통 장단 구조를 따르면서도 즉흥성과 에너지를 담고 있으며, 나머지 무용수들이 그 리듬에 반응하여 본격적인 노동 동작을 전개하는 중심 역할을 한다. 이 장면에서는 음악과 움직임이 분리되지 않고, 장단이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세 번째는 전통 노동요 「얼카덩어리」가 흐르며, 무용수들은 반복적인 동작을 통해 노동의 에너지와 집단성을 극대화한다. 이 구간은 군무가 강하게 강조되는 장면으로, 리듬과 움직임이 명확하게 정렬되고, 공동체의 호흡이 살아나는 흐름을 이끈다.

### 4.1.4 조명

1장은 조명만으로도 이미 이야기를 시작한다. 무대 위에 처음 붉은빛이 드리워질 때, 그것은 마치 해가 막 떠오르기 직전, 새벽의 어슴푸레한 공기 속을 가르는 따뜻한 불빛처럼 무용수들의 등장을 이끈다. 이 붉은 조명은 ‘노동하러 가는 길’이라는 테마와 맞물려, 하루를 시작하는 긴장감과 기대, 그리고 몸의 무게를 동시에 비춘다.

이후 장면이 전개되며 무용수가 장구 앞에 앉고, 장단을 두드리기 시작하면 조명도 변화한다. 붉은빛은 점차 열어지고, 무대는 중간 톤의 따뜻한 백색 조명으로 전환된다. 이 조명은 정면보다는 측면과 하향 조명을 활용해, 장단

에 따라 움직이는 신체의 굴곡과 그림자를 또렷이 드러낸다. 장구의 리듬에 반응 하며 움직이는 몸은, 빛의 명암 속에서 더 생생하게 살아난다.

노동 장면이 깊어질수록 조명은 넓게 확장되고, 움직임의 흐름과 함께 점점 밝아진다. 그러다가 쉬는 시간으로 접어들면, 조명은 한결 부드럽고 따뜻한 확산광으로 바뀌며, 노동의 긴장감이 풀리고 감정이 이완되는 정서적 전환을 시각적으로 전달한다. 무용수들이 원을 이루어 앉거나 서로 교감하는 장면에서는, 전면부보다 낮은 각도의 조명이 사용되어 얼굴과 손의 움직임을 은은하게 밝혀준다.

이처럼 1장의 조명은 단지 공간을 밝히는 기능을 넘어, 노동의 시간성과 감정의 흐름을 함께 호흡하는 서사적 장치로 작동한다. 어둠에서 시작해 불게 물들고, 다시 따뜻하게 확장되어 가는 빛의 흐름은, 하루의 리듬이자 노동의 리듬 그 자체였다.

## 4.2 2장: 피어나는 흥

### 4.2.1 내용 및 안무 의도

2장은 1장에서의 노동이 끝난 뒤, 신체와 감정이 서서히 풀리며 흥이 피어나는 장면을 담고 있다. 움직임은 처음에는 조용하게 시작되지만, 리듬이 살아나고 에너지가 되살아나면서 점차 몸 전체로 감정이 번져간다.

안무는 정형화된 동작보다 자유롭고 유동적인 움직임, 그리고 무용수 간의 감각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다. 서로의 움직임에 반응하며 유쾌한 기운을 주고받는 흐름은, 공동체 속에서 감정이 열리고 연결되는 순간을 표현한다. 리듬은 반복되면서도 변주되며, 움직임은 점점 크고 활달해진다.

이 장면에서의 ‘흥’은 단순히 빠르고 신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고단함을 이겨내며 피어나는 감정의 회복이다. 억눌렸던 에너지가 몸을 통해 조금씩 분출되고, 감정은 자연스럽게 고조되는 리듬을 타고 무대 위로 퍼져나간다.

결과적으로 2장은 노동 이후에 찾아오는 감정의 해방과 신명의 시작, 그리고 움직임을 통한 정서적 회복의 순간을 시각적으로 풀어낸 장면이다. 흥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피어나는 감정이며, 그 움직임은 결국 삶을 견디게 하는 내면의 힘으로 표현된다.

#### 4.2.2 움직임 구성 및 표현

2장은 흥이 서서히 몸을 타고 오르는 감정의 변화와, 움직임을 통한 에너지의 확장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장면 초반, 남녀 무용수 한 쌍이 객석을 향해 정면으로 서서 춤을 추기 시작한다. 이들의 움직임은 처음부터 활기차기보다 리듬을 타기 시작하는 듯한 작은 동작과 감정의 진동에서 출발하며, 마치 무대와 관객 사이에 흥의 첫 파장을 퍼뜨리는 역할을 한다.

동시에, 다른 남녀 무용수 두 명은 무대 상수의 다운스테이지에 앉아 이들의 흐름을 바라보며 몸짓과 시선으로 흥을 부추기고 응원하는 분위기를 만든다. 이들은 말없이도 동료의 감정에 반응하고 리듬에 호응하며, 마치 흥이 확산되기를 기다리는 듯한 긴장감을 연출한다.

이후, 상수에 앉아 있던 무용수들이 일어나 무대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둘 사이의 마주보는 듀엣이 시작된다. 이 장면은 감정이 본격적으로 고조되며, 서로의 리듬과 에너지가 부딪히고 합쳐지는 구조로 전개된다. 눈빛과 상체 중심의 회전, 낮은 중심에서 터져 나오는 발의 반동 등은 흥이 서로를 통해 증폭되는 정서적 상승을 표현한다.

후반부로 갈수록 네 명의 무용수는 각자 흥에 취한 듯 무대 위를 자유롭게 움직인다. 흩어진 동선 속에서 각자의 즉흥적인 움직임이 펼쳐지며, 개별의 흥이 폭발하는 순간들이 교차한다. 그러나 이 흥은 끝내 하나의 리듬으로 자연스럽게 모아지며 네 명의 움직임이 합을 이루는 장면으로 수렴된다. 이는 공동체 안에서 피어나는 흥의 완성을 상징하며, 2장의 정서적 절정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구성은 정형화된 군무보다는 유기적인 관계와 감정의 흐름, 그리고 한국무용의 선적인 호흡과 즉흥성을 바탕으로, 삶과 연결된 ‘흥’의 본질을 몸으로 풀어낸 표현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사진 4-4]

‘홍’ 리듬이 신체로 들어오며 홍이 타오르는 과정의 장면



[사진 4-5]

‘홍’ 홍이 폭발하며 네명의  
무용수가 에너지의 절정을 표현하는 군무장면

#### 4.2.3 음악

‘피어나는 흥’ 장면에서는 전통 타악기와 현대 전자음악을 결합한 음악을 통해, 흥이 점차 고조되는 흐름을 구성하였다. 이 장면에 사용된 음악은 장구, 징, 북, 팽과리 등 한국 전통 타악기의 리듬감을 바탕으로, 전자 사운드, 신시사이저 음향, 반복적인 베이스 루프와 같은 현대적인 사운드 요소들을 믹스하여 제작되었다. 전통 타악기의 울림은 한국 고유의 감정과 공동체적 정서를 자극하며, 전자음악이 가진 반복성과 진동감은 긴장과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 두 요소의 결합은 무용수들의 신체 움직임에 역동성과 리듬감을 부여하고, 관객으로 하여금 점진적으로 고조되는 ‘흥’의 흐름을 감각적으로 경험하도록 이끈다.

음악 구성은 단순히 무대 배경의 역할을 넘어서, 무용수들의 움직임과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전통 장단의 반복성과 현대 사운드의 층위적 구성은 움직임의 밀도, 속도, 방향성을 유기적으로 이끌어내며, 각각의 타악기 소리는 무용수의 움직임의 리듬과 텍스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예를 들어, 장구의 세밀한 장단은 손끝과 어깨의 움직임을 섬세하게 조율하였고, 북과 징의 강한 타격은 하체 중심의 강한 에너지를 발산하게 하였으며, 전자 루프는 지속적인 몰입감을 제공함으로써 신체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유지되도록 도왔다.

이와 같은 음악과 무용의 상호작용은 흥이라는 전통 정서가 단순한 기쁨의 표현을 넘어, 집단적 에너지의 생성과 공유, 그리고 감정의 해방이라는 보다 넓은 층위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전통 타악기라는 시간성과 공간성을 지닌 매체와 현대 음악의 실험적 음향이 한 무대 안에서 공존하면서, 무용수는 단순한 퍼포머를 넘어 음악의 일부로 작동하게 된다. 이는 음악과 움직임이 동등한 예술적 언어로 작동하며 서로를 보완하는 ‘무대적 호흡’의 사례라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피어나는 흥’ 장면에서의 음악 구성은 한국 전통의 흥이라는 정서를 현대 창작무용 안에서 재맥락화하는 예술적 시도이다. 이는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적 접근을 통해 무용의 서사성과 감각성을 강화

하는 방식이며, 한국무용이 지닌 정체성과 표현 가능성을 새롭게 확장하는 하나의 실천적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 4.2.4 조명

작품에서는 무용수들의 감정과 에너지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조명을 서사적 도구로 활용하였다. 특히 조명은 단순한 시각적 효과를 넘어, ‘흥’이라는 정서가 점차 고조되는 과정을 시간의 경과, 노동의 반복, 공동체적 정서의 확산과 결합하여 표현하는 핵심 장치로 기능하였다.

무대 조명의 전체 구조는 하루의 시간대 변화, 즉 새벽에서 아침, 정오를 지나 해가 지는 저녁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을 상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작품의 시작은 새벽녘의 정서를 표현하고자 조도가 낮은 어두운 조명으로 무대를 채우며 시작된다. 이때 사용된 조명은 청색 계열의 차가운 빛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고요한 새벽의 정서를 나타내는 동시에 하루 노동을 준비하는 긴장감 있는 분위기를 자아낸다. 무대 하수에 앉아 있는 무용수는 이 어둠 속에서 미약한 빛으로 드러나며, 본격적인 움직임의 시작을 암시한다.

무용수들의 움직임이 전개됨에 따라 조명 역시 변화하기 시작한다. 장단의 리듬과 함께 무대 전체의 밝기가 점차 높아지고, 색채 또한 따뜻한 주황빛과 연한 노란빛으로 전환되면서 마치 해가 떠오르는 아침의 분위기를 연상시킨다. 이 조명 변화는 흥이 서서히 발현되기 시작하는 감정의 흐름과 맞물리며, 노동이 시작되고 신체가 활성화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구현한다.

이후 무대 중심으로 동선이 집중되고,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는 시점에서는 조명의 밝기와 채도가 최고조에 이른다. 이 구간은 정오 무렵의 강한 햇빛이 내리쬐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무용수들이 각자의 흥에 몰입해 자유롭게 움직이는 장면과 겹쳐진다. 조명은 무대 전체를 고르게 밝히는 동시에, 개별 무용수에게 떨어지는 부분 조명을 통해 각자의 정서와 움직임을 강조한다. 이는 공동체 속에서 개인이 지닌 흥의 에너지 또한 독립적으로 드러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하루의 노동이 마무리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표현하고자 조명은 점차 어두워진다. 붉은빛이 감도는 저녁 햇살을 연상케 하는

조명 이 사용되며, 이는 흥의 정점 이후 다가오는 정서적 안정과 정확의 흐름을 상징한다. 조명의 밝기는 서서히 낮아지되, 색감은 새벽과는 또 다른 따뜻한 정조를 담고 있어 무대에 여운을 남긴다. 이는 노동의 순환 구조와 흥의 정서가 자연의 흐름 속에서 순응하고 공명하는 방식으로 표현된 것이다.

이와 같은 조명의 흐름은 작품 전체에 걸쳐 시간의 경과를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무용수들의 감정선과 에너지의 확산, 그리고 공동체의 집중과 해산을 관객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연출 요소로 작용하였다. 조명은 무용수의 움직임과 함께 무대 공간을 구성하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작품의 주제적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V.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의 전통 노동요와 ‘흥’이라는 감정적 에너지를 중심으로 창작한 한국무용 작품 「흥의 노동, 노동의 흥」을 분석함으로써, 전통 예술 요소가 현대 무용 창작에서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되고 예술화될 수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본 작품은 노동요의 기능적, 정서적 측면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흥’이라는 감각적 정서를 예술적 언어로 전환시키는 데에 집중하였다. 노동요는 단순히 노동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음악이 아니라, 집단의 리듬을 조율하고 신체의 흐름을 조절하는 사회적·문화적 도구이며, 그 안에는 공동체의 감정과 호흡이 내재되어 있다. 본 연구는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하여, 노동요의 리듬과 정서를 무용의 움직임으로 옮기고, 신체의 언어로 재창조함으로써 노동과 흥, 음악과 무용, 전통과 현대를 잇는 창작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작품 「흥의 노동, 노동의 흥」은 ‘노동’과 ‘흥’이라는 두 개념을 대비적으로 배치하면서도, 그것들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무대 위에서 시각화하였다. 제1장은 실제 전통 노동요인 ‘에롱데롱’과 ‘얼카덩어리’를 원음 그대로 사용하여, 전통 농경 사회의 집단 노동 장면을 연상시키는 반복적이고 묵직한 움직임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 장면에서 무용수의 움직임은 낮은 자세와 상체 굴신, 반복 동작 등을 통해 리듬을 신체화하고, 노동의 고단함과 리듬 속의 생명력을 함께 담아냈다. 제2장은 노동 후의 여유와 놀이, 그리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담은 장면으로, 화투 놀이를 상징적으로 배치하여 노동과 놀이, 무거움과 가벼움, 긴장과 이완이 공존하는 감정의 흐름을 보여주었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전통 타악기와 전자음이 혼합된 현대적인 음악이 등장하며, 무용수들의 움직임은 더욱 확장되고 즉흥적인 흐름으로 전개된다. 흥은 이 장면에서 정점에 이르며, 단순한 즐거움이 아닌, 신체의 해방과 감정의 해소, 공동체적 에너지의 분출로 표현된다.

이와 같은 구조 안에서 본 작품은 음악과 무용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바탕으

로 창작되었다. 전통 노동요의 리듬은 단순한 배경음이 아니라 움직임의 기준이 되었고, 특히 장구를 직접 연주하는 장면은 음악과 움직임의 경계를 허물며 하나의 예술적 리듬 구조를 형성하였다. 또한 현대적인 사운드와 전통 악기의 혼합은 전통의 리듬을 낫설고도 새롭게 만들었고, 그 속에서 무용수들은 보다 감각적이고 개성적인 움직임을 실현할 수 있었다. 이 작품은 무용 창작에서 음악이 움직임을 이끄는 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통 장단이 여전히 동시대 창작의 생명력 있는 자원임을 실천적으로 증명하였다.

무용의 안무적 측면에서는 한국무용 고유의 흐름과 선, 중심 이동, 고저차를 유지하면서도, 동작의 반복, 즉흥성, 탈맥락적 장면 구성 등 현대무용의 기법을 혼합하여 구성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전통과 현대의 단순한 혼합이 아닌, 두 장르의 미학적 요소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춤 언어를 형성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무용수들의 움직임은 각 장면의 리듬과 감정에 따라 유기적으로 변화하며, 관객에게 시공간을 초월한 감각의 흐름을 전달하는 데 성공하였다.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는 전통 노동요와 한국무용을 기반으로 하여 전통의 정서를 현대적 예술 언어로 확장시켰다는 점에 있다. 특히 ‘흥’이라는 정서는 한국인의 집단적 정체성과 감각, 리듬감을 내포하고 있으며, 무용 창작에서 이를 신체화하는 작업은 전통의 감정을 현대의 무대 위에서 새롭게 환기시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는 무용이 단지 동작의 배열이 아닌, 정서와 신체, 음악과 공간이 교차하는 예술임을 드러내는 중요한 작업이며, 향후 창작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향후 한국무용 창작에 있어 전통 요소를 단순히 유지하거나 반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그것을 해석하고 변형하며 새롭게 창조해내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노동요뿐만 아니라 판소리, 무속 음악, 민속 무용 등 다양한 전통 요소들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재구성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동시대 한국 무용은 보다 정체성 있는 예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무대 미술, 영상, 사운드 디자인 등 타 예술 영역과의 융복합을 통해 한국무용은 더욱 확장된 표현의 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전통 기반 예술의 동시대적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흥의 노동, 노동의 흥」은 전통과 현대, 노동과 예술, 리듬과 감정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새로운 예술 언어를 만들어낸 창작 작업이었다. 본 작품은 한국인의 삶 속에서 이어져 온 리듬과 흥의 본질을 동시대적 언어로 되살리고자 한 시도이며, 그 안에서 무용은 전통의 외피를 두른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살아 숨 쉬는 감각의 예술로 존재함을 다시금 증명하였다. 앞으로도 한국무용은 전통을 기억하되 머무르지 않고, 전통을 바탕으로 ‘지금 여기’를 말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예술로서의 여정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참고문헌

- 강성현(2012). 『한국 노동요 연구』. 민속원.
- 김미숙(2009). 「한국무용에서 장단과 움직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학회지』, 27(3), 45-60.
- 김유희(2005). 『흥의 미학: 한국인의 정서와 예술의 원천』. 사계절.
- 문영호(2011). 「노동요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연구」. 『구비문학연구』, 24, 101-130.
- 박선희(2017). 「전통공연예술에서 장단과 춤의 관계에 대한 고찰」. 『전통예술연구』, 15, 77-98.
- 신은경(2010). 「무용창작에서 한국 전통 정서의 현대적 재해석」. 『무용예술연구』, 8(2), 55-72.
- 이경화(2013). 『한국무용의 미학적 탐색』. 예술문화출판사.
- 이정희(2008). 「한국 무속음악의 장단 특성과 무용과의 상관성 연구」. 『한국음악연구』, 42, 33-58.
- 정명숙(2006). 『민요와 노동요』. 한울아카데미.
- 김진순(2008). 「한국노동요의 기능과 역할」. 『한국민요학』, 24, 81-115.
- 이정아(2009). 「남녀 노동요에 나타난 의식과 그 차이: 경북지역 논매기 소리와 삼삼기 소리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0, 225-248.
- 김혜정(2016). 「강원도 어업노동요의 일본 음악 잔존 양상」. 『한국민요학』, 47, 59-83.
- 김익두(1998). 「민요의 시학과 정치학: 전북지역 노동요의 공연학적 해석」. 『한국민속학』, 30, 23-48.
- 이용식(2017).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지정 민요의 전통성과 현대적 변용: 어업요를 중심으로」. 『한국민요학』, 49(1), 179-196.
- 김정희(2019). 「북한 어업노동요의 음악적 특징」. 『공연문화연구』, 39, 279-323.

- 김현정(2014). 「초등학교에서 전통 생활 문화 지도를 위한 노동요 고찰 및 풍속화 통합 방안 연구」. 『음악교육연구』, 43(3), 1-19.
- 김지은(2018). 「한국 전통 정서 ‘흥’의 무용적 해석과 창작 적용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32(2), 92-110.
- 정다운(2020). 「전통 노동요의 리듬적 특성과 그 현대적 계승방안」. 『한국 음악이론연구』, 66, 117-138.
- 박현주(2021). 「전통 예술에서 집단성과 즉흥성: 노동요의 공연적 해석을 중심으로」. 『민속예술연구』, 58, 45-66.

## 2. 기타

홍길동(2020). 『현대무용에서 전통소재의 응용 방법에 관한 연구』.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종목별 정보 (<https://www.cha.go.kr>)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한국민속학회. (<http://folkency.nfm.go.kr>)

국립국악원 아카이브. (<https://archive.gugak.go.kr>)

## 부 록

### 공연 프로그램 요약

작품명	흥의 노동, 노동의 흥
일 시	2025년5월21일 7시30분
장 소	M극장
안무자	이태웅
출연진	이태웅 이재인 김형민 이정연
의상디자인	이태웅
무대감독	손성현
조명감독	강현석
영상감독	효 협

# 팜플렛

2025 한성대학교대학원  
무용학과 무용공연전공  
석사학위청구 작품발표회

M극장  
2025.05.21. (wed) 7:30pm

김혜연 이태웅 조한진

# 21 MAY 2025

주최 주관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용학과  
전화 02-760-4107 | 홈페이지 [www.hansung.ac.kr](http://www.hansung.ac.kr)



## 흥의 노동, 노동의 흥



안무 및 출연 이태웅



출연 이재인



이정연



김형민

노동 속엔 흥이 있고, 흥 속엔 노동이 있다.  
삶의 고단함을 함께 견디기 위해, 인간은 리듬을 만들고 몸을 움직였다.  
이 작품은 노동의 반복성과 흥의 즉흥성이 만나 만들어내는  
'살아 있는 몸의 에너지'를 무대 위에 펼쳐낸다.  
억눌린 속에서도 피어난 신명, 흥겨움 속에 스며든 땀방울.  
우리는 그 교차점에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생명력을 춤으로 이야기한다.

### 1. 노동의 시간

땅을 일구고, 짐을 나르고, 호흡을 맞추며 함께 일한다.  
반복되는 동작과 단단한 몸짓은 삶을 지탱해온 노동의 기록이자, 공동체의 리듬이다.  
서로의 숨결을 따라가는 이 시간 속에서, 인간은 생존을 이어간다.

### 2. 피어나는 흥

고된 몸짓 속에서 문득 피어나는 리듬.  
무거운 손과 발이 장단을 타고 흔들리며, 노동은 흥으로 변해간다.  
억눌린 일상이 터지는 순간, 그 안에서 신명이 살아나고 몸은 자유로워진다.

## ABSTRACT

### A Study on the Dance Work 「Heung of Labor, Labor of He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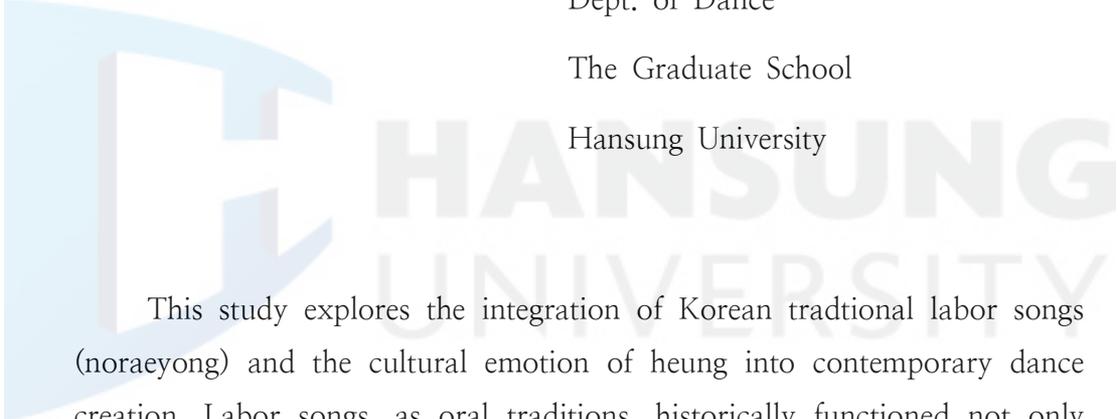
LEE, Tae-Woong

Major in Dance Performance

Dept. of Danc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integration of Korean traditional labor songs (noraeyong) and the cultural emotion of heung into contemporary dance creation. Labor songs, as oral traditions, historically functioned not only to enhance work efficiency during communal labor but also to foster a strong sense of unity among workers. Simultaneously, heung—a uniquely Korean emotional concept—represents a collective sense of excitement, immersion, and spontaneous vitality that arises from shared experience. While labor songs carry a functional and rhythmic purpose, heung serves as the affective energy that fuels both individual and communal expression.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elements and their artistic potential within the realm of Korean dance.

Based on theoretical analysis, the researcher created an original dance piece entitled *Heung of Labor, Labor of Heung*. The work interprets the rhythm and spirit of traditional labor songs through contemporary choreography, combining authentic folk melodies such as *Erongderong* and *Eolkadeongeori* with modern musical elements and traditional Korean percussion instruments including the *janggu*, *buk*, *jing*, and *kkwaenggwari*. The performance consists of two main scenes—“Labor” and “Heung.” The first scene focuses on the repetition and physical exertion of labor through rhythmic structures and real-time drumming, while the second scene explores moments of rest, play, and emotional elevation, expressed through dynamic bodily movements and traditional play imagery such as card games.

The staging of the work paid close attention to the integration of music, lighting, costumes, and movement. The lighting design, which gradually brightened from darkness to light, symbolized the temporal flow from dawn to dusk—a metaphor for the laborer’s day. The choreographic structure emphasized repetitive, almost mechanical movements to portray physical labor, transitioning into more expressive gestures to convey the emergence of *heung*. This shift embodies the transition from physical effort to communal joy, underscoring the human spirit within repetitive work.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raditional elements such as labor songs and *heung* can serve not only as folkloric artifacts but also as rich, dynamic foundations for contemporary dance creation. By reinterpreting these cultural elements through modern aesthetics, the work contributes to the ongoing dialogue surrounding the identity and evolution of Korean dance. Furthermore, the study provides a practical and theoretical model for the integration of tradition and modernity, and highlights the role of the body as a medium for emotional and communal storytelling in dance. This research offers meaningful insight for future creative works and academic discussions that seek to bridge the past and present within Korean performing arts.

This study explores labor songs and *Heung* through Korean creative dance, emphasizing the fusion of tradition and modernity, community, and physical expression.

**[Keywords]** Working song, excitement, Korean dance, creative dance, fusion of tradition and modernity, community, physical expression